

# 눈뜨고 빼앗긴 성보문화재

## 완주 대원사 목각사자상 공소시효 지나 못찾아

### "허술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교계 요구

문화재 보호법이 허술한 탓에 도난당한 비지정 성보문화재를 발견·신고해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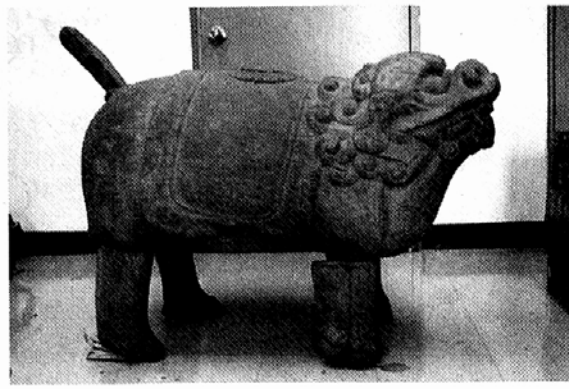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서울 인사동 모 화랑에서 88년 도난되었던 전북 완주군 대원사의 목각사자상을 확인하고 서울지검에 신고했으나, 사자상을 되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영욱(64·서울 종로구 가회동) 씨가 소유하고 있던 사자상을 압수한 뒤 수사를 시작했지만, 전북도가 도난을 이유로 90년 6월 문화재 지정을 해제했고 또 일반 도난 사건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사건을 종결하고 이씨에게 사자상을 되돌려 주고 만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

아내고 2월 9, 17, 21일 세 차례에 걸쳐 가처분 집행에 나섰으나 이씨가 사자상을 빼돌린 뒤여서 회수는 커녕 소재조차 묘연한 상태이다.

전남 모 사찰에서 10년 전 도난당한 사천왕도도 지난해 11월 서울 인사동 모 화랑에서 발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고 또 도난신고도 돼, 인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했다. 결국 사천왕도를 도난당한 사찰은 돈을 주고 다시 사달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두 사건의 사례를 통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법적 규제가 허술하다고 판단, 비지정문화재 도난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에 문화재 전담반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방이 묘연해진 목각사자상을 회수하기 위해 총무원 청사에 '목각사자상은 대원



◇88년 도난당한 대원사 목각사자상. 지난해 이영욱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고 도난을 이유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어 이영욱씨에게 되돌려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 사로 돌아와야 합니다'는 문구의 대영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원사 주지 진홍스님은 "성보를 찾는 것은 대원사 모든 신도의 숙원"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환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 "종책개발에 역점" 실천승가회 정기총회

실천승가회 정기총회는 29일 파주 보광사에서 7차 정기총회를 열고 청화스님을 의장으로 재추대하는 한편 200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실천승가회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종책 개발 기능을 강화해 한국불교의 비전과 종단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개편된 주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상임지도위원-지선(전 백양사 주지), 보선(대동사 주지), 정련(조계종포교위원장) △부의장-장림, 여연(종회의원),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화법(종회의원), 도현 △기획조정실장-로진 △집행위원장-장정(종회의원) △통일위원-장-도각 △인권위원장-혜조(청룡암 주지) △민족문화위원장-원봉(봉은사 주지) △환경위원장-진원(종회의원) △종책위원장-법안(종회의원) △포교위원장-법안(쿠진법장사 주지) △재정위원장-원종(종양승가대 동문회장) △사무처장-홍호 △감사-만성(전 총무원 기획실장), 원태, 진만(종회의원), 정성운 기자

# 사찰 납골묘 주민반대로 '난항'

## 양산 동선사·천불사

사찰 납골묘가 설치허가를 받아놓고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묘지 설립 권장책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남 양산 원동면 서동리 동선사(주지 단공)는 지난해 7월 사

로부터 납골당설치 허가를 받고 사찰내 극락전과 부도탑 건립을 거의 끝낸 상태나 최근 지역주민들의 시위로 잔여공사는 물론 운영부도 불투명해졌다.

주민들은 사찰 납골당을 혐오 시설로 판단,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사찰 진입로를 롬바인과 트랙터 등으로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다.

양산 웅상읍 천불사(주지 도봉)도 지난해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 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마을 일대의 교통소통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천불사측은 현재 사찰내 200여명의 무연고 노인이 수용돼 있는 실바타우이 있어, 이들 노인을 위해서라도 납골당 설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선사와 천불사측은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라며 "사찰뿐만 아니라 시나 정부에서도 무언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 진각복지재단·연꽃마을 복지관 잇달아 수탁

진각종 진각복지재단과 연꽃마을이 2월25일과 17일 서울 도봉구와 고양시로부터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각각 수탁했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이 수탁한 도봉서원복지관은 연면적 1390평에 지하 2층 지상6층 규모로 어린이집과 동사무소가 복지관내에 설치돼 주민복지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건물은 7월에 완공되며, 7월말~8월 초중에 개관 예정이다.

진각복지재단은 이곳 도봉구 지역이 경제지대가 낮고 사회복지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특성에 맞게 가족복지사업, 재가복

지사업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 열린정보센터, 24시간보육전담점, 지역단체육성지원사업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수탁한 노인복지회관은 일산의 호수공원내에 위치한 연건평 1500평 규모로 노인복지회관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며, 4월 중순 개관 예정이다. 연꽃마을은 상담사업, 기능회복사업, 평생사회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례서비스와 결혼식, 돌잔치, 회갑잔치 등을 유치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 태고종 보현도량 복지법인 설립추진

태고종 젊은 승가 모임인 보현도량(회장 법성)은 2월 26일 제 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복지법인 설립, 학술세미나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사업과 예산 4천만원안을 확정했다.

보현도량은 지난해 실시했던 여름가족순회회를 연 2회로 확대해 실시키로 하고 도제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지금에 오고 있는

동반과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지활동 강화를 위한 복지법인 설립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포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1세기를 맞는 한국불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경전연구를 통한 수행자상 정립을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 조계사 대승불자회

# 10년간 매주 법회 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 하지만 그 긴 세월동안 매주 한차례씩 열리는 법회를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 온 조계사 대승불자회가 오는 5월로 10살 생일을 맞는다.

대승불자회(회장 송광수·대천실업 대표)는 조계사 신도회 조직에 속한 불자회로 중·장년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신행단체. 대승보살행 실천과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교양대학 수준에 버금가는 교리학습 및 불우이웃돕기, 군법당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보니 신도들간의 의견차이로 이따금 흥역도 치를 수밖에.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창립 당시 60여명이었던 대승불자회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시기는 회원수가 6백명에 육박했던 지난 97년. 그러나 종단사태 이후 부침을 거듭해오면서 현재는 법회 참석 인원이 1백명도 채 안된다. 그러다보니 회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

대승불자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월2일부터 5월4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특별법회를 개최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불자상'을 다시 세워보자는 데 있다. 또 조계사 인근의 연합통신, SK건설, 한국은행 등 각급 직장의 불교회와 제휴해 직장 불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들이 대승불자회에 참여토록 하는 '새 피' 수혈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대승불자회를 지켜온 황태철 총무(50·대동공영 이랜드 대표)는 "조계사가 '사찰 1번지'라면 대승불자회는 '불자회 1번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회원들의 다짐"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1일 출발한 통일정진불교연대는 통일과 통일 이후 사회의 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을 서원했다.

# '1000일 정진' 3·1절 출범

21개 통일관련 불교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 (이하 통일정진불교연대)는 1일 오후 1시30분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의 나무되어 평화의 숲이 되어'란 주제로 입제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통일정진불교연대는 공동발원문을 통해 "남북의 상층을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통일을 이루는 원력보살이 되자"고 제안했다. 상태용 운영위원장은 "1000일 기도정진은 신행운동이자 민족통일운동이며 통일운동"이라면서 "통일이후 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 불교의 미래를 위해 수행·정진하자"고 말했다.

입제식은 공동대표 홍주스님(경원불부회장의 인사말, 성초진각종 통리원장의 축사, 각 단체의 활동계획 발표, 공동발원문 낭독 및 헌공, 발원 찬란의 합창으로 진행돼 3·1절 분위기와 어울리면서 통일에 대한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참가자들은 입제식이 끝난 후 '온겨레 손잡기 운동'에 동참, 광화문에서 덕수궁까지 인간띠를

이으며, 통일에 대한 서원을 다졌다. 김재경 기자

## "원각사 앞 아파트공사 사찰환경 파괴한다" 7개 불교단체 성명발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인

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교육원 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불교연합회 전국불교순도연맹 불교바로세우기재단연대 등 7개 불교단체는 2월28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 사찰환경 파괴에 대한 제 불교단체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 종교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불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주공공사는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사찰과 신도들이 입을 신형생활적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 현각스님 산속으로 다시 들어간 까닭

동안거를 마친 남자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계통산 신원사 국제선원 이랜드 대표, 참선으로 수행정진한 법안의 남자 현각스님(36)은 지난 4일 다시 산으로 들어갔다. 계통산 무상사에서...

동안거를 마친 남자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계통산 신원사 국제선원 이랜드 대표, 참선으로 수행정진한 법안의 남자 현각스님(36)은 지난 4일 다시 산으로 들어갔다. 계통산 무상사에서...

포교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현각스님이 지난 3일 한국불교선학연구원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현각스님은 "이번 해제기간에는 외부 강연을 가능한 하지 않고 무상사에서 정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각스님이 계통산 무상사행을 결행하게 된 배경에는 은사 승산스님(화계사 조실)의 특단의 조치란 후문이다. 승산스님은 동안거 해제 대중공사에서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가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대중강의와 법문으로 자칫 풀릴지도 모를 현각스님의 수행정진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선학연구원에서 만난 현각스님은 "승산스님께서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뜬을 오래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밥의 뜬을 드리는 과정처럼 계통산에서 씹는 가행정진을 할 생각이다"고 짧게 말했다. 김준근 기자

삼·부·농·산·은·슈·기·제·배·약·초·만·승·생·산·하·고·있·습·니·다.

57.116/99.92 MBC-TV '고향은 저급' 99.924 KBS-TV '5시 내그림' 99.710 SBS-TV '모닝와이드 평영'

#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유기재배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목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썩이어서 열매가 열리게하기를 허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노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차나 술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부농신 SAM BU Farm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복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이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 괘·고급나무 조각  
· 목판 필각형  
· 만다라·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0x450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익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힘겨운 기(氣)를 함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운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원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들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복과 재산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